

2012년 일본의 무역수지 현황과 전망

김은지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차 례 ●●●

1. 2012년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
2. 일본의 무역수지를 둘러싼 쟁점별 영향 분석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2년의 무역수지는 6조 9,3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2년 연속 적자이며 전후 최대 규모의 적자폭임.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2012년 10월까지 지속된 엔고, 대중(對中) 수출감소로 2년 연속 감소함.
 - 수입은 원전사고 이후 대체연료인 LNG 수요증가로 3년 연속 증가함.
- ▶ 2012년 9월부터 악화된 일·중 관계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대중 수출감소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전략 변화를 통해 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중국시장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대중 수출이 10.8%나 급감하였으나, 이러한 대중 수출감소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그럼에도 일·중 관계 악화는 일본기업이 대중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전략을 재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대중 투자 위축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됨.
- ▶ 2013년에는 엔화 약세와 해외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환경이 개선되지만 에너지 수입증가를 상쇄할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도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는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증가에 힘입어 흑자폭이 4조 엔대에서 6조 엔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 ▶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본정부와 일본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리스크 대응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일본정부는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의 중요성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대응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기업도 중국 리스크를 경감·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음.

1. 2012년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

가. 무역수지 및 수출입 추이

■ 2012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6조 9,3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일본의 무역수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 매년 10조 엔 전후의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에 적자(2조 6천억 엔)로 돌아선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었음(그림 1 참고).
- 2012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2.7배나 증가한 배경에는 ①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경제 감속에 따른 수출감소, ② LNG, 원유 등 광물성 연료 수입증가에 기인함.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와 2012년 10월까지 지속된 엔고, 대중 수출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2.8% 감소한 63조 7천억 엔을 기록함.
 - 수입은 원전사고에 따른 LNG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70조 7천억 엔을 기록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일조함.

그림 1.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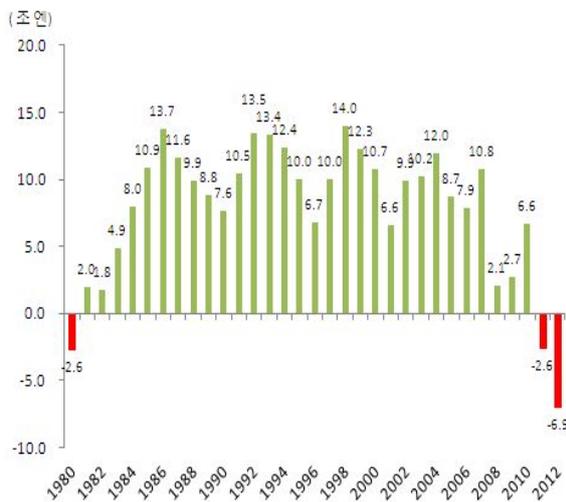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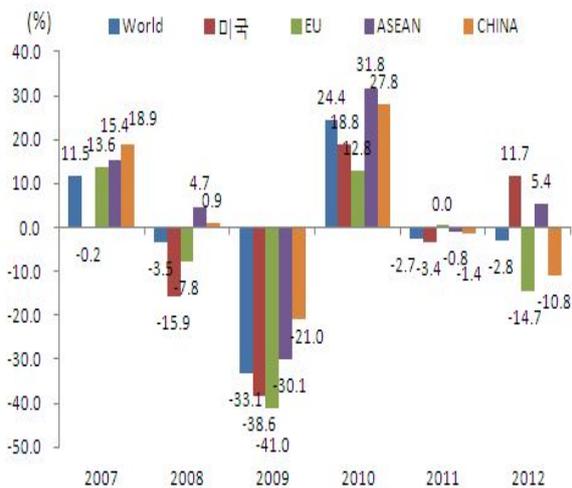


그림 2. 일본의 국가·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 財務省 홈페이지(<http://www.mof.go.jp>), 「貿易統計」.

■ 일본의 국가·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2년에 대미(對美)·대ASEAN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대EU·대중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고).

- 대미 수출은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용기기가 호조세를 나타내 전년대비 11.7% 증가한 11.2조 엔을 기록함.
- 대중 수출은 중국의 경기감속에 따른 설비투자 억제 및 일·중간 영토분쟁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8% 감소한 11.5조 엔을 기록하였고, 중국이 일본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7%에서 18.1%로 하락함.

나.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012년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기준으로 수송용기기를 제외한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감소하였음.
 - 총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용기기(23.5%) 수출은 2012년에 전년대비 6.8% 증가하여 15조 엔을 기록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20조 8천억 엔)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음.
 -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 철강 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각각 7.0%, 1.7%, 6.4%, 5.8% 감소하였음.
 - 일반기계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대중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전년대비 23.7% 감소)한데 기인함.
 - 철강 수출은 세계경기 감속에 따른 수요감소 및 해외현지 법인의 현지조달 확대에 의해 감소하였음.
 - 전기기계 수출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배경으로 수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화학제품에서는 의약품(-10.8%), 플라스틱 제품(-6.6%), 유기화합물(-4.7%)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수입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70조 7천억 엔을 기록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일조함. 수입증가는 국제상품 가격상승, 원전사고에 따른 LNG 수요증가에 기인함.
 - 광물성연료가 전년대비 3.8%(2조 3천억 엔) 증가한 가운데, 이 중 LNG와 원유·정유가 전년대비 각각 25.4%(1.2조 엔), 7.3%(0.8조 엔) 증가하였음.
 - 특히 발전용 LNG 수입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자 부족한 전력 수요를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년대비 25.4%나 급증한 6조 엔을 기록함.

표 1.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추이 및 증감내역

(단위: 조 엔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액
수출 총액	83.9	81.0	54.2	67.4	65.5	63.7	-2.8	-1.8
화학제품	7.7	7.3	5.8	6.9	6.8	6.4	-6.4	-0.4
철강제품	4.0	4.6	2.9	3.7	3.7	3.5	-5.8	-0.2
일반기계	16.6	15.9	9.7	13.3	13.8	12.8	-7.0	-1.0
전기기계	16.9	15.4	10.8	12.7	11.6	11.4	-1.7	-0.2
수송용기기	20.8	20.1	11.9	15.3	14.0	15.0	6.8	1.0
수입 총액	73.1	79.0	51.5	60.8	68.1	70.7	3.8	2.6
광물성연료	20.2	27.7	14.2	17.4	21.8	24.1	10.4	2.3
원유·정유	12.3	16.3	7.6	9.4	11.4	12.2	7.3	0.8
LNG	3.1	4.7	2.8	3.5	4.8	6.0	25.4	1.2
석탄	1.7	3.1	2.1	2.1	2.5	2.3	-5.9	-0.1

자료: 일본 財務省 홈페이지(<http://www.mof.go.jp>), 「貿易統計」.

2. 일본의 무역수지를 둘러싼 쟁점별 영향 분석

가. 일·중 관계 악화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9월부터 악화된 일·중 관계는 일본의 대중 수출을 급감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2012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엔고의 장기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일본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대한 반발로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나 감소하였음.¹⁾
 - 센카쿠 열도 문제가 격화되면서 2012년 9월 대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1%나 감소함. 이는 아시아 역내 NIES(-7.7%), ASEAN(-4.9%)에 비해서도 두드러진 감소폭임.
 - 대중 수출증가율(월별)은 9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그 영향으로 일본의 9월 광공업생산지수도 전년동월 대비 8.1%나 감소하였음(그림 3 참고).
 - 일본의 품목별 대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수송용기기(-32.1%), 일반기계(-29.1%), 철강(-19.7%), 전기기계(-6.7%) 모두 급감함.
 - 일본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19.7%)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대중 수출감소로 18.1%로 하락함(그림 4 참고).

그림 3.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증가율(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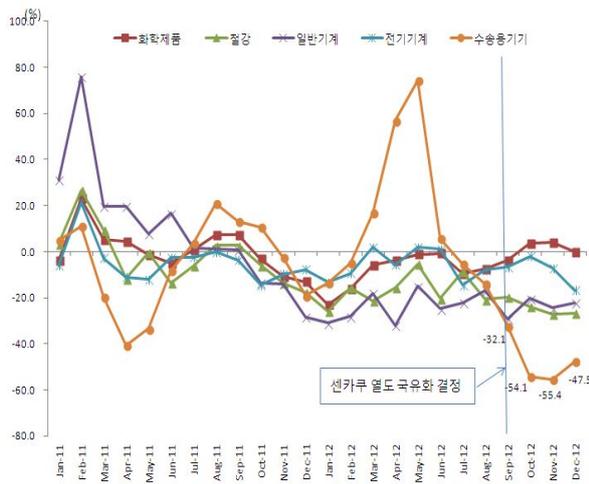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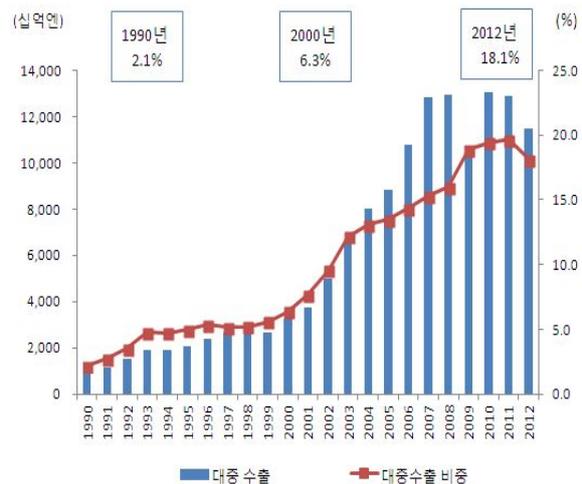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대중수출 금액 및 비중



자료: 일본 財務省 홈페이지(<http://www.mof.go.jp>), 「貿易統計」.

1) 2012년 9월 11일 일본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결정하자 중국 125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일 항의시위가 잇따르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었음. 칭타오(靑島), 창사(長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기업의 공장, 슈퍼,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함. 瀨口清之(2012. 11. 12), 「中國經濟の現状と先行および尖閣問題後の日中關係悪化の影響」,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p. 5.

- 일·중 관계 악화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대중 수출감소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전략 변화를 통해 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총합연구소(2013. 1)는 최근 일·중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양국간 마찰이 장기화될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우려함.²⁾
 - 또한 중국 내 수송용기기의 생산감소가 9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의 대중 수출은 3,500억 엔 감소하고 국내 생산도 1.1조 엔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중국 내 정보통신기계 및 전기기계 등의 현지 생산감소가 9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의 대중 수출은 1.6조 엔 감소하고, 2013년 실질 GDP는 3.0조 엔(전년대비 -0.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다이와총합연구소(2013. 2. 19)는 대중 수출감소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대중 수출감소가 지속되는 기간별(3개월, 6개월, 12개월)로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1년간 지속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GDP에 대한 영향은 0.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또한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중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표 2. 일·중 관계악화로 인한 대중 수출감소가 일본의 GDP에 미치는 영향

		수출 하락 지속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대중 수출감소가 GDP 감소에 미치는 요인	(억 엔) (GDP 대비, %)	1,178 (0.02)	2,062 (0.04)	5,402 (0.11)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에 의한 영향	(억 엔) (GDP 대비, %)	767 (0.02)	1,342 (0.03)	2,933 (0.06)

주: GDP 대비는 2012년의 명목 GDP에 대한 비율을 말함.
자료: 大和総研(2013. 2. 19), 「第176回日本経済予測」.

- 또한 미즈비시도쿄UFJ은행(2012. 10. 26)은 단기적으로 ‘상품수출과 ‘해외 현지법인 활동’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대중 투자위축으로 인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³⁾
 - 과거 세 차례 대규모 반일 시위로 인한 일·중 관계 악화 시점과 2012년 9월 시점을 비교하여 ‘상품 수출’, ‘서비스 수출’, ‘현지법인 활동’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음.⁴⁾
 - 그 결과 최근의 일·중 관계 악화 정도가 과거 세 차례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상품 수출’과 ‘현지법인 활동’ 측면에서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큰 반면 ‘서비스 수출’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함.
 - 최근의 일·중 관계 악화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GDP 성장률과 기업의 매출액을 0.5% 정도씩 하락시킨 것으로 산출됨.

2) 日本總研(2013. 1), 「日本經濟展望」, p. 6.

3) 三菱東京UFJ銀行(2012. 10. 26), 「經濟關係が強まる中での日中間の情勢悪化と日本經濟」.

4) 동 보고서에서는 일·중 간 사회적·정치적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던 과거 세 차례(2003년 10월, 2005년 4월, 2010년 9월 시점)의 경우와 최근 2012년 9월 시점을 비교·분석함.

표 3. 일·중 관계 악화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세 차례의 영향 결과	향후 예상되는 영향
상품수출	· 발생시점 전후 6개월간 전년대비 변화율의 평균치 하락폭을 기준으로 계산 (2003년: -7.2%p, 2005년: -3.7%p, 2010년 -15.3%p)	· 2010년도 수준으로 악화 · 일본의 GDP 성장률을 -0.4~-0.5% 정도 인하
서비스수출	· 발생시점 이후 6개월간 전년대비 변화율의 최대격차를 기준으로 계산 (2003년: -122.1%p, 2005년: -1.6%p, 2010년 -59.6%p)	· 일본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현지법인 활동	· 발생시점 이후 6개월간 제조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액의 전년대비 변화율의 최대 격차 기준으로 계산 (2003년: -13.3%p, 2005년: -14.1%p, 2010년: -36.4%p)	· 중국 현지 법인의 매출 총금액이 2010년도 수준으로 악화 · 일본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수출 감소와 비슷한 수준

주: 1)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감소율을 기준으로 11월 이후에도 수출하락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영향을 계산한 것임.

2) GDP 대비는 2011년도의 명목 GDP에 대한 비율을 말함.

자료: 大和総研(2012. 12. 5), 「関係悪化による日中経済への影響」.

■ 국제협력은행(2013. 1)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일·중 관계악화는 과거 사례보다 일본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한 점과 일본기업이 대중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재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⁵⁾

- 첫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중국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66.1%를 차지하며, 과거 2010년의 설문조사 당시 결과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327사 중 '크게 영향을 받았다' (22.3%, 72사) 및 '다소 영향을 받았다' (42.8%, 140사)라고 답변한 기업은 213사(65.1%)로 집계됨([그림 5] 참조). 이는 2010년도 조사 당시 기업 수(94사)의 2.3배에 해당됨.
- 둘째, 중국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업종은 석유·고무(88.9%), 자동차 조립·부품(85.3%), 철강(77.8%)과 같이 자동차 관련 산업들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① 거래처의 피해로 인한 간접적인 생산·판매 영향(122사), ② 중국 출장 등 업무 전반에 미친 영향(106사), ③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의한 판매 영향(106사) 등의 부정적 영향이 많이 지적됨.
- 셋째, 이번 일·중 관계 악화는 유망사업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일본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업전개 국가 선정' 에서 중국을 단연 1위로 선정해 왔음.
 - 그러나 이번 일·중 관계 악화를 계기로 유망사업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평가가 변화되었다고 답변한 일본기업이 전체 327사 중 151사(46.2%)로 늘어남.
- 넷째, 일본기업들은 향후 중국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중국사업의 투자억제·삭감'을 추진하기보다는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사업에 대한 대응인식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327사 중 '개선할 필요가 있다' (7.6%)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55.7%)라고 응답한 기업이 63.3%(207사)에 달함.
 - 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국사업을 지속한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74.4%(154사)로 매우 높은 반면 '중국사업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다른 국가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6.3%(13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5) 國際協力銀行(2013. 1),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2012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第24回)—」. 이 조사는 2012년 11월 5~20일 동안 일본기업 327사(유효 응답률 53.3%)를 대상으로 시행됨.

그림 5. 업종별 중국사업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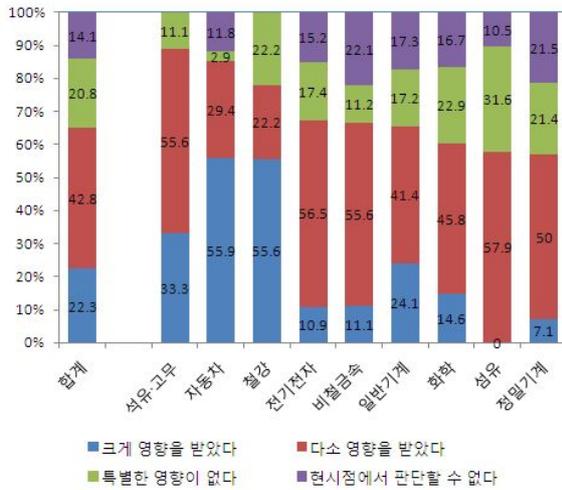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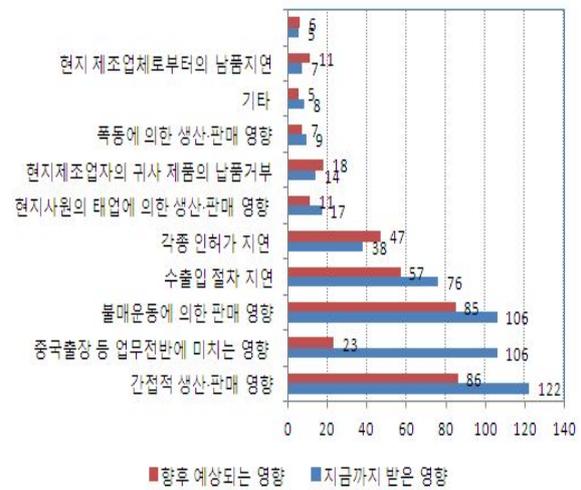


그림 6. 중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자료: 國際協力銀行(2013. 1),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2012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第24回)」.

- 한편 일·중 간 대립구도 장기화는 일본기업의 대중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전략의 재구축으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미즈호총합연구소의 스기우라 부이사장은 일·중 간 대립이 일본기업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 대중 투자축소와 고용감소를 통해 중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⁶⁾

나. 엔화 약세가 일본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의 무역수지는 엔화 약세로 수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미즈호총합연구소(2013. 2. 13)는 [표 4]에서와 같이 엔화 약세가 진행될수록 일본의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⁷⁾
 - 엔/달러 환율은 2012년 9월 이후 약세 기조가 지속되어 이미 현재 기준(2013. 2. 15)으로 2012년 9월 저점 대비 21% 이상 상승한 93.81엔을 기록함.
 - 엔/달러 환율이 기준치 80엔에서 90엔으로 상승할 경우, 무역적자 규모는 0.5조 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입 구조변화에 기인함.

6) 杉浦哲郎(2012), 「日中対立が迫る事業戦略の再検討」. みずほリサーチ December 2012. みずほ総合研究所.

7) みずほ総合研究所(2013. 2. 13), 「円安でも‘過去最大の貿易赤字’は拡大する」.

- 수출 측면에서 장기간 엔고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지생산용 부품에 대해 현지조달 비중을 확대해온 결과, 엔화 약세에 의한 수출수량 증가효과는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수입 측면에서 발전용 연료는 해외조달이 불가피하며 환율 변동만으로 수입수량이 감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인한 달러 기준의 연료수입 대금지불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 4. 엔화 약세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 엔)

엔/달러 환율	수출금액 증감	수입금액 증감	무역수지 증감
85	1.9	2.1	-0.2
90	3.5	4.0	-0.5
95	5.0	5.7	-0.7
100	6.3	7.2	-0.8
110	8.7	9.8	-1.1
120	10.6	12.0	-1.4

표 5. 엔화 약세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 엔)

엔/달러 환율	무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수지
85	-6.0	15.1	6.3
90	-6.3	15.4	6.3
95	-6.4	15.8	6.6
100	-6.6	16.1	6.7
105	-6.8	16.4	6.9
110	-6.9	16.8	7.9

주: 증감 실적은 1달러=80엔의 경우와 비교한 것(통관 기준)을 토대로 산출한 것임.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13. 2. 13), 「円安でも「過去最大の貿易赤字」は拡大する」.

- 한편 닛세이기초연구소(2013. 2. 8)는 엔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확대를 유발하지만, 2013년 하반기 부터 엔화 약세 효과로 인해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할 것으로 전망함⁸⁾
 - 일본의 통화별 무역거래에서 외화표시 비중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61.6%, 77.1%(2012년 하반기 실적 기준)로 나타남. 따라서 환율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가격보다도 수입가격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또한 엔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가격경쟁력 상승을 통해 수출수량 증가효과가 나타나고,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수입수량 감소를 유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해외경기 회복에 의한 수출수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엔화 약세에 의한 가격효과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한편 2013년 경상수지는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증가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즈호총합연구소(2013. 2. 13)는 엔화 약세로 인한 소득수지 증가폭이 무역수지 감소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며, 경상수지가 엔화 약세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엔/달러 환율이 85엔에서 95엔으로 상승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0.4조 엔 확대되지만, 소득수지는 흑자 규모(0.7조 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0.3조 엔 확대될 전망이다(표 5 참고).
 - 소득수지는 엔화 약세로 해외자산(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증권투자)에 대해 수취하는 투자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진행된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8)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13.2.20). 「円安で貿易収支はどこまで改善するのか」.

3. 전망 및 시사점

■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2013년 일본의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수지 적자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2013년도 후반 이후부터 해외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기 시작하지만, 2014년에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⁹⁾
 - 2012년 12월 기준으로 일본의 수출수량이 3개월 만에 증가한 가운데 대중 수출 감소폭도 축소되었고, 2013년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대중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에 의한 가격효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해외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수량이 얼마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2013년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규모 감소와 소득수지 흑자규모 증가로 2012년도의 4.1조 엔에서 6.3조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소득수지는 2013~14년 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며 15조 엔대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정책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¹⁰⁾

- 일본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의 중요성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대응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본기업들의 경우 중국 리스크를 경감·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투자진출 후보국을 선정할 때 중국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제3국의 투자환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검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추이는 해외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을 부추겨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됨.
 - 그러므로 수출기업들도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절감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KIEP

9) みずほ総合研究所(2013. 2. 15), 「2012・13・14年度 内外経済見通し」.

10) 구체적인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에 대한 전략 변화는 김규관·이형근·김은지(2012), 『G2시대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참고하길 바람.